

교단 총회의 발전 위해 헌신 다짐



제65차 총회 제1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조남영 목사) 제65차 총회 제1회 임원회가 지난 5월 23일(월) 오후 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열려 교단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한 회기동안 회원들을 잘 섬기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교단과 지방회, 교회의 부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최형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김갑신 목사의 대표기도,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고전 15:29-31 말씀을 본문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는 한 회기가 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

남께서 인도해 주실줄로 믿으며 맡기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내가 죽고 참을 때 아픔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으며 총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임원들이 될 것”을 전하고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의장 조남영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홍현철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보고사항이 이어졌다. 보고사항에서 교단 총무 최형택 목사는 교단업무보고사항으로 65차 정기총회 각종 진행 세부사항들이 보고되었으며 해외선교사 목사안수, 제6회 전국사모연합회 정기총회 등의 내용들이 보고되었다.

이어 재무 조원석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안재홍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주소변경, 교회 명칭변경 건이 보고 결의되었으며 65차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각 국장과 각 위원장이 각각 연임 또는 새로이 임명되었다. 평신도국장에 최정식 목사가 새로 임명되었으며 기타 임기만료된 해당자는 다음 임원회 때까지 적임자를 찾아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국장과 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교단 발전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기타사항으로 제65차 총회장 조남영 목사 취임 감사예배 6월 2일 가평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제6회 청소년 할렐루야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림번영교회 평창수양관에서 개최, 총회 목회대학원 상반기 계절학기를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각 지방회별 교단발전기금 납입건과 실행위원회 시점심사사 후원 신청건 등을 비롯 제65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6월 27일 개최하기로 했다.



아버지의 은혜와 자녀의 공경



조용목 목사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엡 6:1-3)

사람이 사용하는 낱말 중에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보배로운 말은 은혜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은혜와 사랑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둘째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람이 느끼고 소유하게 되는 행복의 깊이는 바로 이러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체험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보은의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이차적으로 따져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식일 지라도 부모는 그러한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을 때까지 애써며 염려합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생애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눈물겨운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불효막심하고 불량해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자식을 위하여 온갖 희생을 감내하게 하며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의 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이며 계명입니다. 성경에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에 대한 저주와 형벌에 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반면에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 보은하는 것은 사람 된 도리입니다. 자신을 낳고 기르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부모가 공경 받아야 할 어떤 조건이 구비되던 공경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라는 그 자체가 공경 받아야 할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생활력이 없는 부모를 자식은 정성껏 봉양해야 함

(은혜와진리교회)

“동성애자들의 서울시청 앞 퀴어축제 반대한다”

6월 8일(수) ~ 10일(금) 서울시청 앞 광장, 미스바 구국금식기도성회 열린다

오는 6월 11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그동안 교계에서는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 취소 국민대회를 열었고, 기독당(대표 박두식)은 서울시청 광장 사용허가 취소청구 소송 및 취소가 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행정적인 대응도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사회의 그릇된 성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전국민들에게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고 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한국교회 미스바 구국금식기도성회가 개최된다.

오는 6월 8일 오전 9시부터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11일 하루 전날인 10일 자정까지 3일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앞마당에서는 매일 2시와 7시 예배를 제외한 매시간 구국금식기도회가 실시된다.

특히 6월 10일(금) 오후 2시에는 대대적인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연다. 결집된 힘으로 동성애의 폐해를 깨우치고 그릇된 성문화를 바로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최측은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사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기의 한국을 구하고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인간의 힘 만으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없고, 오직 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며 “2013년 WCC 총회 당시, 총회에 반대하여 ‘한국교회 부흥성회’에 참여했던 바알에게 무릎 꿇



지 않은 거룩한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기도의 현장으로 정중히 초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 준비위원은 다음과 같다.

- 대표대회장 : 피종진 목사, 이태희 목사
- 공동대회장 : 조남영 목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정관술 목사(전 WCC 반대운동 회장 겸 고신증경총회장), 김노아 목사(전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겸 예장성서총회 총회장), 유인상 목사(대기총 증경총회장, 예장합동측), 박성기 목사(전 WCC 반대운동 회장 겸 브니엘 이사장), 윤태중 목사(잠신증경총회장), 최병국 목사(대신증경총회장)
- 상임위원장 김향주 박사(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조직위원장 김경철 교수(전 WCC 반대운동 사무총장)
- 상임총무 최형택 목사 사무총장 임요한 목사(예수재단 대표) 기획위원장 김인기 목사(WMMA, 세계미디어선교회 회장) 중보기도위원장 김진복 목사 대화협력위원장 김재만 목사 경호위원장 서요한 목사 홍보위원장 주동식 기자 예배위원장 광영민 목사 진행위원장 김호규 목사 찬양위원장 성기찬 목사 사무국장 이남숙 전도사(010-2294-8074)

금식성회 공식계좌
우리는행 1002-555-534801
(예금주 : 김경철 / 조직위원장)

조남영 목사, ‘목적이 분명한 목회’ 강조

목대원, 총회신학교 2016 상반기 특강

‘목회학’ ‘영적전쟁’ ‘현대신학’ ‘성경적 경제부흥’ 주제로



교단 총회(총회장 조남영 목사) 목회대학원, 총회신학교(원장 임종달 목사) 2016학년도 상반기 특강이 지난 5월 30일(월)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첫 번째 시간에는 교단 총회장 조남영 목사가(가평순복음교회)를 강사로 하여 ‘목회학’을 주제로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조 목사는 ‘목회학’이란 주제의 강의를 통해 가평순복음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목회 경험담을 들려주며 학생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진심함을 불어 넣어 주었다.

특히 “목회자는 목회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전하고 “장기목회의 장점은 계획목회가 가능하고 신자와

악과 관리가 잘되며 신자가 목회자를 신뢰하며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한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체득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들려주었다.

조 목사는 또 “이러한 장점을 외에도 인재양성이 쉽고, 특징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조금 힘들다고 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성령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특강에는 전 건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임철수 목사의 ‘영적전쟁’, 순창순복음교회 김종호 목사의 ‘현대신학’, 순복음복원교회 최정식 목사의 ‘성경적 경제부흥’이란 주제의 특강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한교연, 판문점 DMZ 등 안보시찰

확고한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고취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지난 5월 17일 일원과 회원교단 단체 소속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판문점과 DMZ, 도라산, 제3땅굴 견학 등 안보시찰을 실시했다.

명예회장 신진목 목사와 김진호 감독(기감), 분원소 목사(통합) 등 36명의 교계 지도자들은 민통선 내 도라산역과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도라산전망대, DMZ전시관과 제3땅굴을 견학했으며, 공동경비구역(USA) 내 판문점과 북한군이 도끼만행사건을 일으킨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차례로 시찰했다.

한교연 안보시찰단은 수도서울에서 불과 50킬로미터 내외의 거리에 둘러쳐진 철책선과 DMZ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내 판문



점을 둘러보면서 확고한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하루빨

리 남북이 군사적 대치를 끝내고 평화 통일이 오기를 기도했다.

지적장애우와 후원자의 잔치한마당 펼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사랑 공유, 해오름의 집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지적장애우 시절단체인 해오름의집원장 김성래씨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적장애우들이 함께 모여 함께하는

이주 큰 사랑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지난 5월 21일 오전10시 용인시 수지구 신봉중학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

사자, 후원자를 비롯한 장애우들 3백명이 함께 모여 풋발라레이 행복의 구름다리, 터널달리기 등 다양한 행사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따뜻한 사랑을 공유했다.

축제에 앞서 열린 개회식은 김성래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해오름의 집 거주인 및 직원들의 공연이 있었으며 해오름의 집을 적극 후원한 열린교회(담임 최만수 목사) 등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가졌다.

해오름의 집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동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개별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잠재능력개발 및 기능 회복을 시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했으며 김성래 원장을 비롯한 복지사,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이 지적장애우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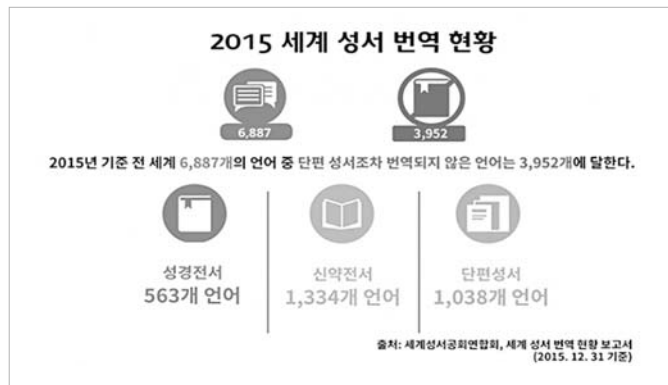
전 세계 성서 2,935개 언어로 번역

세계성서공회연합회-아직도 3,952개 언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UBS)는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단편(즉복음)이라도 번역된 언어의 수가 총 2,935개에 이한다고 발표했다.

‘2015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Global Scripture Access Report 2015)’에 따르면, 전 세계 6,887개의 언어 중에 성경전서는 2014년보다 21개의 언어가 더 많은 563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으며, 신약전서는 1,334개, 단편(즉복음)은 1,038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각국 성서공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번역본을 개정하고 새로운 번역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20개의 새로운 번역본 및 개정본과 2개의 해설 성경이 출판되었다. 특히 2015년에는 3천 3백만여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28개 언어의 첫 번역이 이루어진 해로, 이 중 첫 번역 성경전서는 11개, 신약전서는 6개, 단편성서는 11개에 이른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2013년부터 진행



하고 있는 '100개의 성서 번역 완료 프로젝트'는 2015년 말 기준 90개 언어의 번역이 완성되었고, 그 중 53개의 언어가 출판되었다.

이 중 하나인 미얀마의 쿠미 친 성경은 한 국교회의 후원으로 제작 출판되었다. 쿠미 친 신약성경은 1958년 출판되었으나 구약 성경 번역을 계속 진행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2001년에야 비로소 구약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교회가 번역 지원 및 성경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원하면서 성경전서를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 라이베리아의 경우, 수많은 에볼라 사정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꾸준한 성경 번역을 진행하여 새로운 버전의 두 가지 언어의 단편성서를 출간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0년차 총회 개회

기성 여성삼 신임 총회장 “사중복음 생활화 노력”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지난 5월 24일, 서울신학대학교(총장 유석성 박사)에서 '성결교회 민족의 희망, 사중복음 우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제110년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오는 5월 26일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첫날 개회예배 전에 '하나님, 성결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된 회개 기도회 사회는 김진호 목사(교단 총무)가 맡았고, 총무교회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했으며, 홍길표 목사(서울신대 총동문회장)가 '서울신대가 참된 하나님의 종을 양성하게 인도하게 하소서!', 김동원 장로(평신도단체협의회 대표회장)가 '성결교회를 고쳐주시고, 목사와 장로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는 주제로 주례를 기도했다.

이어진 개회예배 집례는 여성삼 목사(부총회장)의 말마 진행했고, 성혜표 장로(부총회장)의 기도, 최영철 목사(총회 서기)가 성경봉독을 한 후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찬양대가 찬양을 했으며, 유동선 목사(총회장)가 행



11 : 19-26 말씀을 본문으로 '미래 지향적인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이 설교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어 미래를 위해 좋은 교단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어 성찬예식이 거행됐으며, 교역자부인회 찬양단이 찬양을 했다.

또한 국내 및 해외선교, 교회개혁, 장기근속, 100주년 교회, 특별공로 등 대상자에게 표창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박대희 목사(전 총회장)가 축도함으로 개회예배를 마치고, 저녁 회무로 이어갔다.

총회장에 선출된 여성삼 목사(원호종교회)는 기자회견과 취임사를 통해 "총회장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단이 되도록 하겠다"며 "주어진 1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기보다, 교단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 성결교회 정체성을 강화하는 일들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랑재단, 제4회 영국봉사대상 시상식거행

유네스코 전 총회의장 데이비스 헵번 대상

프랑스 파리의 한인침례교회당에서 거행된 국제사랑재단 제4회 영국봉사대상 시상식이 한인사회 지도자 교계 및 성도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19일 프랑스 파리 한인침례교회 교회당에서 열렸다.

시상식은 파리한인장로교회 이국범 목사의 사회로 파리중앙장로교회 허광웅 목사의 개회기도, 파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상구 목사(파리한인침례교회담임)의 설교, (사)국제사랑재단(I.L.F)대표회장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장관)의 시상경위보고와 시상식이 진행됐다.

김영진 대표회장은 "제4회 국제사랑 영국봉사대상에 유네스코 전총회의장 데이비스 헵번 의장께 수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인구50만의 바하마군도 출신으로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지난 30여년 동안 주 UN대사와 유네스코회장을 통해 지구촌 소외된 이웃과 인권, 정의, 평화를 위해 헌신해온 노력과 활동을 기리고자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 제1회 수상자로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 제2회수상자로 일본의 도이 류이



치 중의원 원내대표와 제3회 수상자는 국제기아대책회장으로 헌신해온 미국연방의원 11선 의원과 국가조찬기도회장인 토니 홀의 원이 소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수상자로서 독실한 크리스천인 데이비스 헵번 전 의장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렇게 뜻깊은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고 더욱 최선을 다해 지구촌의 고난 받는 사람들과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사)우리민족교류협회(이사장 송기

학 장로)와 (사)한반도평화통일국민조직위원회(명예위원장 정희와 의장/대표조직위원장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는 헵번 의장과 파리교회협의회 이상구 회장에게 각각 평화의 메달을 수여했고 김 장로는 경위보고와 시상식을 주관했다.

한인사회를 대표하여 유럽지역 평동 대표를 맡은 박흥근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외국 주요인사 방문으로 모질민 주 프랑스대사는 행사장소를 직접방문 김영진 위원장과 잠시 담판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심재석 선교사 괴한 습격으로 피살

지난 2000년부터 필리핀에서 사역



필리핀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심재석 선교사(67세)가 괴한의 습격으로 살해됐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20일 새벽 4시 30분경 필리

핀 수도 마닐라 외곽 안티폴로 지역에서 심재석 선교사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다.

선교국의 한 관계자는 심 선교사가 20일 새벽 교회 사택에서 침입한 괴한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괴한이 휘두른 가스통에 의해 총

격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8시쯤 두개골 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사고 현장을 조사한 영사의 말을 빌려 사고 경위를 전했다.

한국대사관은 금품을 노린 강도들의 범행으로 보고 현지 경찰, 선교사회장 등과 함께 현장감증을 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필리핀 선교사회(회장 김승환 목사)는 긴급대책반을 꾸려 사고수습과 장례준비에 나섰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사고소식을 접한 뒤 선교국의 김영주 부장과 중부연회 조인현 총무를 현지에 급파했다.

선교국은 23일 현지에서 선교국장으로서 장례절차를 밟은 뒤 화장 후 유골을 한국으로 이송해 다시 장례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선교사의 시신은 현재 안티폴로 시티 소재 '헤븐 오브 앤젤스(Heaven of Angels)'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다. 심재석 선교사의 사망으로 올해 들어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은 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11명이 살해됐다.

심재석 선교사는 중부연회 인천 동지방 지구촌선교교회 피송선교사로서 김진대(80학번)를 졸업하고 싱가포르 선교사를 거쳐 지난 2000년부터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동북부 지역에서 현지인 사역을 펼쳐 왔다.



예장 사명자총회가 주최하고 (사)한국기독교교수교단협의회 주관, 왜곡없는 바른 해석이 바른 신앙으로

가지고 살 때다(사 5:8-12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문 목사는 "여호와가 하시는 일은 미래에 하실 일을 말하며 이미 이루어진 된 의의 말씀이 아닌 될 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사 4:1에 일곱 금촛대 같이 온전한 교

대한성서공회 성서출판 지원센터 공식 인준

대한성서공회가 성서 출판 지원센터로 공식 인준됐다.

이와 관련하여 성서공회는 지난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9차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세계총회 인준됐다

고 밝혔다. 미국성서공회 설립 2백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로부터 150여 개국의 성서공회에서 4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이를 위한 산 소망'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각국 성서공회 대표들은 25세 미만의 청년 인구 증가와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 노령화, 가속화되는 인구 이동, 도시화, 소득 계층 양극화 및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전 세계 종교 지도의 변화 등 변화하는 글로벌 사역 환경을 점검하고, 다음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각

나라 성서공회들이 세계 성서사역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을 통해 성경 번역이 세계성서운동의 중심축임을 확인하고, 리더십 개발부터 다양한 대상들의 필요에 맞춘 사역 개발에 이르는 여덟 가지 중점 사역 분야에 집중할 것을 결의하는 필라델피아 선언을 의결했다.

‘2016년 교회학교 교사강습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려

“주님께 받을 칭찬과 상, 학생들의 거룩한 변화와 교회학교 부흥”에 대한 소망 충만



교사강습회 예배과정



아동부찬양율동

2016년 교회학교 교사강습회가 5월 21일 (토) 은혜와진리교회 안산성전에서 교단 교육국 주최 은혜와진리교회 교육자료국 주관하에 ‘소망’ (살전 5:8)을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교사들은 오전 10시 대성전에 모여 거룩한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이어진 여러 강의와 실습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꾀하며 어린이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 등 교회학교 여름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안기호 목사의 사회로 안산성전 고등부부장 김기복 장로의 기도에서 이어진 개회예배 설교에서 권준수 목사는 강습회 주제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로 은혜를 끼치며 교사들의 사명감을 북돋워 주었다.

권 목사는 빛의 자녀로 변화된 신분에 합당하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항상 있고 장자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즐겁게 헌신하는 교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아동부서 교사들은 대성전에서 대담벤엘교회 에이레네 어린이 선교단의 시범을 통해 새로운 찬양활동을 배우고 중고등부 교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생들과의 소통과 교제를 주제로 한 특강을 들었다.

성전과 부서별로 즐겁게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에는 각 부서별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프로그램의 세부 계획안 설명회와 진행방법과 시연회 등의 순서가 교사와 교역자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신령한 지식과 귀한 경험을 쌓고 사명감으로 더욱 충만해진 교사들은 배우고 익힌 것을 교육 현장과 여름행사에서 적극 적용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맑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인이 크게 성장하고 교회학교가 놀라게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강습회를 마쳤다.

이번 교사강습회에는 교단 내 확린순복음교회, 송전교회 등 여러교회가 함께했다.



아동부



중·고등부

목사임직 ‘부름 받은 사명자’ 충성으로 감당 다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는 지난 5월 28일(토) 오전 11시 엘림교회 담임 김지수 전도사의 목사 안수식을 갖고 귀한 직분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용 목사(새희망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오병용 목사(이문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지방회 서기 김경준 목사(영영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삼산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담전 3:1-7 말씀을 본문으로 ‘부름 받은 사명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설했다. 이날 설교에서 “하나님의 종인 목사는 교회 지도자로 개인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에 있어 책임할 것이 없어야 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고, 느그리우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특히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2부 안수식에서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는 먼저 김지수 전도사로부터 임직서약을 받고, 곧바로 김지수 전도사의 안수례가 진행됐다. 안수례가 진행되는 동안 지방회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함께 안수 받는 김지수 전도사를 위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고, 안수 후 안수위원들과 악수례,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의 김지수 전도사가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했다.



이어 안수위원들은 안수 받은 김지수 목사에게 성의를 확인하였으며, 임직증서와 임직패를 수여했다.

3부 축하의 시간에는 증경회장 이동수 목사(한희순복음교회)의 축사, 증경회장 김운용 목사(증평순복음교회)의 권면이 있었

며, 성경교회 성전회의 축가, 안수 받은 김지수 목사의 답사가 있었다. 이날 목사 안수식의 모든 순서는 증경회장 윤경현 목사(보은순복음교회)의 축도로 김지수 목사의 이름 담고 건강한 목회를 소망하며 축하와 축복의 모든 시간을 마무리했다.

열린순복음교회 창립감사 및 장로장립예배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5월 21일(토) 오전 11시 열린순복음교회(담임 김미연 전도사)의 지난달 28일 창립이후 감사예배와 김광래 장로의 장로장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박흥열 목사(오성사랑교회 담임)의 사회, 대표기도에는 김효신 목사(천양교회 담임), 성경봉독에

정미자 목사(세교교회 담임), 설교에는 김기인 목사(벤엘교회 담임)가 록 14:25-33 말씀을 본문으로 ‘제자가 되는 6단계’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과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축사는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행강교회 담임)와 총무 박흥열 목사(오성사랑교회 담임)가 전했으며 권면에는 증경회장

이규호 목사(동산교회 담임)와 신동숙 목사(임마누엘교회 담임)가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최정용 목사(민음교회 담임)의 헌금기도 후 직전회장 김남수 목사(맑은빛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김광래 장로는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열린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모든 회원들과 성도들이 함께하며 교제를 나누고 모든 행사를 은혜기운에 마쳤다.



심은애, 김권삼 목사 임직 감사예배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는 지난 5월 21일(토) 오전 11시 큰빛복음교회(담임 김권삼 목사)에서 심은애, 김권삼 목사 임직예배를 거행하였다.

이날 임직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기성 목사(새소망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증경회장 김상기 목사(사랑과생명교회)의 대표기도, 한행렬 집사(은혜순복음교회)의 특송, 주사라 목사(순복음성령교회)의 위임, 증경회장 권이옥 목사(중앙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권 목사는 마 4:4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기도와 찬양, 성령충만과 복음전도와 같은 본질적인 목회자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의 중요성과 순교자적 신앙’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목사 임직식은 지방회장 김덕영 목사(진리교회)의 집례로 권이옥 목사, 박형우 목사, 김상기 목사를 안수위원으로 서약, 기운적의, 악수례 공포, 임직증서와 임직패 수여가 있었으며, 이어 박형우 목사(은광교회)의 축사, 최현규 목사(하늘포도



회)의 권면, 권이옥 목사의 축도로 목사임직예배를 마쳤다.

2016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상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 시 : 2016년 7월 11일(월) ~ 15일(금) 4박 5일
- 장 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강 사 : 본 대학원 원장 임종달 목사 외 5명
- 등록 마감 : 2016년 7월 4일(월) 17:00
- 기 타 : 재학생은 무료, 미 취득 학점이 있을 시 학점 대체함
- 문 의 : 02)2677-0692~3(본 대학원 행정실)
- 선교 헌금 : 1,000,000원(숙식은 각자 해결하셔야 합니다)
- 선교 헌금 입금계좌 : 농협 302-0928-2133-91 임종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 생명의 말씀 ■



황용연 목사

· 경남지방회장
· 은혜와평강교회 담임

사사기 7장은 기드온의 사역 중에서 가장 화려한 승리의 장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투에 나선 기드온이 불과 300명이라는 아주 작은 군사로 무려 135,000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진멸시키는 기적적인 전쟁기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단순한 승리의 모습뿐 아니라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승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군사력이 막강하고 숫자적으로 우세하고 전술전략이 뛰어난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드온의 300 용사를 통해서 오늘날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와 그 자격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자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영적 군사의 자격

(삿 7:2-18)

1. 겸손한 자가 승리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겸손한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까요? 미디안과 그 동맹국의 군사들의 수는 135,000명인데 비해서 이스라엘의 수는 32,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4배 이상이나 되는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군사 숫자로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십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강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삿 7:2)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분명히 기드온은 자신의 실력으로 이긴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백성들도 승리감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요인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서 찾지 않고 인간인 자신들의 공으로 돌려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시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승리합니

다. 자연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높은 산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곳에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곳에는 결코 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준비된 자가 승리 합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한 분들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라도 준비된 자가 일을 맡아야 의욕을 가지고 소신껏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일반병을 물고기 데려가서 물을 먹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6-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있을 때 이들의 물 먹는 태도를 보고 세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는 개가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이며,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요, 세 번째는 물을 손으로 움켜쥐어 입에 대고 핥는 자로 구분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의 부류의 사람 300명만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개 같이 물을 핥는 자나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경계 태세를 풀고 있는 사

람입니다. 반면에 손으로 움켜쥐어 입에 대고 핥는 자(6절)는 주위를 경계하는 조심성과 군인 정신이 투철한 자이며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왕하 4:3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한 생도의 집에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얼마나 가난하고 빚을 지었는지 이 가정의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빚을 못 갚는다고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왕하 4:3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리고 가져온 그릇에 “마지막 남은 기름을 부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름을 붓는 대로 병이 치고 낫습니다. 언제까지 “빈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준비된 그릇이 없을 때까지.

우리 교회, 가정, 나 자신, 우리 모두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순종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드온은 비밀스럽게 햇불 작전(19-23절)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용사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눈 것도 보다 더 비밀을 잘 유지하고 기습 공격을 할 수 있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 시킨 기드온 군대의 주 무기는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햇불입니다.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햇불을 감추고 진격하는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는 도저히 전쟁 무기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일단 기드온은 본문 17절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삿 7:17)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햇불 작전은 한 두 사람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들 따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작전과 신호에 따라서만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총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의 군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영적인 군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과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반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2)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시어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당할 것인가!

현재는 속히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합헌>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재의 바른 결정이, 군대 내 성폭력과 부적절한 ‘항문성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군기(軍紀)를 유지시키고, 병사들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군 전역자 20~30대 1,02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항문성교나 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존속 여부에 대하여 86.8%가 현행대로 “존속”내지는 오히려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었다. 이것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본다.

현재는 무책임한 동성애 찬성 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굴하지 말라. 성적 방종과 타락으로 치닫는 서구사회의 압력에 굴하지 말라. 한제도 군의 기강 확립과 국가안보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염려하는 줄로 믿는다. 절대대수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재판관들의 현명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동 정

나사렛대, 장애학생 무료한방진료



나사렛대(총장 임승안)가 거동이 어렵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중증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해 호평을 얻고 있다. 한방진료는 지난 2011년 약선한의의원(원장 최호성)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매월 1회 한방진료를 통한 장애학생들을 돕고 있다.

한일장신대 '마음숲 상담센터'개소



한일장신대학교(총장 오덕호) 상담학 전공자들이 상담법인인 '마음숲 심리상담센터' (공동대표 박선영 정일신)를 개소했다. 센터는 여러 전문상담사들과 함께 기업체, 국가 공모사업, 학교와 관공서, NGO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참여해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상담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익 목사 원로추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신촌성결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취임했다. 약 25년간 이 교회 담임으로서 모범적인 목회를 한 동시에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사역해 온 이정익 목사가 이임하며 원로로 추대됐고, 박노훈 목사가 그 뒤를 잇게 됐다. 지난 60여 년간 이성복·최학철·정진경 목사 등 가라섬 같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 담임을 거쳐왔다.

정준하, 사랑의 도시락 기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wvw.worldvision.or.kr)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기부 문화에 방송인 정준하와 가수 지코가 동참해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을 후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PD가 기획한 영상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공개하여 추천수가 높을수록 기부금을 많이 가져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현재는 군형법 92조의 6, 반드시 합헌으로 판결해야

현재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이하 헌재)에서 심리 중인 <군형법 제92조의 6(군92조의 5)에 대한 위헌 여부>가 5월 중에 판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당초 지난 달 말에 판결될 것으로 여겼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미뤄져 왔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헌재가 이런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미룸으로써 동성애 옹호 측과 동성애 반대 측의 첨예한 대립과 극론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미 지난 2011년 <군형법 제92조 6>의 ‘추행’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 주저할 이유가 없다.

군형법 제92조 6(추행)은 “제3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군속)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

시하여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한 동성애 옹호 측의 주장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민간인들의 상호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데,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을 띠지 않고 상호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까지도 처벌한다는 것 둘째, 이 조항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 셋째,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넷째,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UN 국가별보편적장래인권검토(UPR) 등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히 폐지권고를 받아왔다는 것 등이다.

위의 첫째, 둘째, 셋째 이유를 보면, 군대 조직의 목적과 특수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한다는 것이다. 만약 군대 조직의 목적에 따른 특수성이 없다면 자유권을 제

한하는 군형법을 제정, 시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지구상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 군대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모병제에 의한 직업군인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남자라면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야 하는 징집제다. 군복무 자체가 법에 의한 강제다.

그러므로 군대조직의 특성상 군 기강 확립과 국가안보를 위해 군 개인의 권리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그것은 ‘헌법 제37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저들이 주장하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행사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동성 간의 성행위는 우리사회에서도 정상적인 성행위도 아닐뿐더러 보호되어야 할 인권의 대상도 아니다. 하물며 군대 내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는 상호 간 합의에

의한 것일찌라도 윤리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군 기강 차원에서조차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군 기강은 곧 국민의 전력과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대 내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이유로 허용한다면, 상담자의 합의로 위장한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의 인권유린의 면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동성 간의 성행위의 자유화로 동성애가 부대 내에서 급속히 확산 될 때, 만연하는 성병 확산, 특히 부대 내 에이즈 확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급속같은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 부모들은 자식의 안전을 위해 마음을 졸이고 사는데, 성추행, 성폭력을 당했

찬양부흥회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느끼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깨닫는
은혜와 능력의 찬양부흥회

순복음신나는교회 담임목사 이후관

서울 양천구 화곡로 4길 12(구 신월5동 52-3)
전화 02-2606-2191 (서울남서지방회 소속)



15년여에 걸쳐 약 500여 회의 찬양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주일 저녁시간(서울 경기 일원)을 원하시는 교회는 저녁 7시로 맞춥니다.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은 별도 상의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0-2322-0049
무료로 진행합니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장래의 꿈을!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군서교국(국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좀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 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 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

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 기억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국 국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보내실 곳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905
e편한세상 103/801

사회와 교회에 봉사하는 기독교 학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CWSA) 주관 춘계학술대회

국내 대표적인 기독교 학술단체 기독교학문연구회(KACS: 회장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가 주최하고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CWSA)가 주관하여 5월 28일 전주대학교에서 2016년 춘계학술대회 “기독교 학문은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봉사 할 것인가?”란 주제로 학자와 교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한국 기독교의 적극적인 사회와 교회에 학문적 봉사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다.

장현일 박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회장, 생명나무교회 목사)는 송태현 박사(기회연 연구부회장이화여대)의 사회로 “기독교학문과 정책개발이라는 기초 강연에서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와 성장지향주의 이분법적 성숙분리를 비롯 기독교의 신앙 등에 물든 건장치 못한 교회론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신학에 기반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분석하고 “기독교 학문의 적극적인 사회와 교회에 대한 봉사를 강화해야 하며, 기독교 학문이 국가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박사는 “저출산 고령화 극복위한 종교시설 활성화, 통일화합 북한나무 심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와 종교인 과세문제를 비롯한 종교평화법 문제점” 등 사례발표를 통해 국회입법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입법 지원을 위한 학문적 봉사를 주문했다.

또한 장 박사는 “공공정책의 특정 영역에 관해 연구자 개별적 접근의 한계로는 정책 반영 확률이 더욱



낮기 때문에 공공정책에 관해 학제적 접근과 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공공정책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한국교회가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성경적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변환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박사는 “기독교학문이 사회와 교회에 공공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봉사하기 위해서 기독교학문을 통한 국가, 교회에 공공정책 필요성을

한국교계에 설명하고 (가정)한국기독교정책연구원 혹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기독교정책연구소를 설립”을 제안하며, 급변하는 다문화 사회에 적극적인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자 한국교회에 “공공정책해설실교본” 등을 지원하고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공공정책을 제시하고 정책입안부터 집행 그리고 감사까지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질적 기독교정책연구소 설립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CTS, 아주사퍼시픽대학교와 MOU 체결

교육, 연구, 기술 분야 등 다양한 협력활동 공동 추진할 것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지난 5월 27일 업무협약식을 열고 Azusa Pacific Univer-

sity(총장 Jon R. Wallace, 이하 ‘아주사퍼시픽대학교’)와 학문과 문화의 교류를 증진하고 세계 복음화



를 통한 상호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분화, 학문, 기술의 교환 △학생, 교수 및 교직원들의 교환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력과 다른 프로젝트의 교환 등 관련 사역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미주 우수 대학인 아주사퍼시픽대학교와 좋은 협력관계가 되어 기쁘다”며 “세계 선교사역에 힘쓰는 CTS와 아주사퍼시픽대학교가 서로의 강점 교류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존 박 부총장은 “형제, 자매와 같이 전구사역을 위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해 가는 양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며 “CTS와 아주사퍼시픽대학교의 협약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첫 출발점임을 확신하며 CTS와 협력함으로써 점진과 나눔의 사역에 대한 기회가 확장될 것 같아 기대된다”고 전했다.

CTS는 각 지역 케이블과 SkyLife 183번, IPTV(KT QOOK 236번, SK BTV 551번, LG U+ 180번), 해외 위성, CTS APP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

목양 칼럼

문천우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호수아교회 담임목사, 캐나다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M. A.), 한세대학교 목회학석사 졸업 (M. Div.), 호서대학교 신학 박사 졸업 Th. D), 홍익대학교 광고홍보 대학원 과정중

네 안에 나 있다

(마 7:3)



“재는 왜 옷을 저 모양으로 입고 다니네?” “난 저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 “저런 인간들은 모조리 빗자루로 쓸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해.” “제발 저 사람 좀 방충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지나가는 사람들이든, 미디어에 등장하는 명사이든, 주변 지인이든,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향해 지나치게 비판적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해석을 따르다면, 그런 비판자는 실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향해 자기비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자기 방어기재 중 하나인 투사(投射)로 자신의 내면의 부정과 분노를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건강한 시각을 지닌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틀테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빠가 자식을 중 유독 못 마땅히 여겨 늘 구박하던 자식을 향해 오늘날 비난을 쏟아냅니다. “야, 이 녀석아. 너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기에 이 모양이냐? 응? 난 말아야 도대체 너란 녀석을 이해할 수 없어. 아니, 누구 닮아 그런 거냐! 응?” 이런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던 아빠의 어머니(즉 아이의 할머니)는 참다 못해 한 마디를 합니다. “야, 이놈아, 누구 닮긴 누구 닮아! 너 어렸을 때 딱 저랬다! 네 아들 하는 것이 네 판박이구만 뭘! 아이고, 유전이 무섭긴 무섭다. 어쩔 지 애매한 하는 것이 똑 같을 수가 있더냐?” 아이를 향한 아빠의 비판의 이유를 할머니는 관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성서에서 늘 예수님과 대적점에 서 있었던 바리

새인들은 습관적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비난 역시-위에 제시한 아이의 아빠와-같은 이유로부터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죄 짓고 넘어지고, 때 묻힌’ 타인들을 볼 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고 분노한 이유는 타인을 통해 자신들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관찰할 때마다 자신들 속에 숨어 있는 욕망과 충동을 보게 되었을 테고, 그럴 때마다 그들의 영혼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슴에 빠근한 뭉클마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필요 이상 분노하고 비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나치게 자신의 도덕성을 내세우는 태도는 투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유리창은 두 개의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투과(透過)이고, 다른 하나는 반사(反射)입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혹은 안을) 보려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엿볼-보게 됩니다. 유리에 투과와 반사가 동시에 일어나듯,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타인을 관찰할 때 동시에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듯, 어느 순간이라도 타인을 볼 때 자신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1. 우선 상대에 대한 비난을 멈추거나 줄입니다. 2. 그리고 상대의 모습에 나타난 자신의 실체를 살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교만의 죄’를 피할뿐더러 ‘기만의 죄’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은 연인들의 표현, ‘네 안에 너 있다.’를 조금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네 안에 나 있다.’

해외동포두리두리사랑회 정기포럼

제51차, 아동문학가 이진호 박사 주제 강연

문학을 통한 해외동포사랑운동을 28년 동안 지속적으로 펼쳐온 해외동포두리두리사랑회(회장:김철수 박사)는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남 함평군 해보면 소재 셋별힐링타운 미술로몬대학교 세미나실에서 ‘나의 삶, 나의 문학’이란 주제로 가졌다.

주제연사로서는 군가 ‘멋진 사나이’ 등 국민계몽가 ‘홍아저씨’ 좋아졌어’를 작사한 원로 아동문학가 이진호 박사, 이 박사는 교육자로서, 그리고 아동문학가로서 살아온 그의 삶을 되돌아보며 보람과 기쁨 그리고 추억을 만

추하는 열정으로 공감을 받았다.

한편, 동 회는 한국과 중국의 수교이전인 지난 1991년 7월부터 현 회장인 아동문학가 김철수 박사가 중국 조선족자자주를 방문, 조선족 동포들과 교류를 가지면서 시작되어 저러나는 동포 후대들을 위한 각종 장학사업과 도서지원 사업을 펴왔다. 특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독립군 유가족들의 생활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며 해마다 중국현지를 방문하여 민족정체성 확립과 민족동질성을 일깨우는 일에도 힘써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교단정책위원장

교단 총회장

지도교문

회장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조남영 목사



김인한 목사



신재영 목사



김건수 목사

2016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지도교문 김인찬 목사(청신교회)
정부용 목사(대림멜로교회)
증경회장 엄기설 목사(은혜와찬양교회)
김희태 목사(간현교회)

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천교회)
상임위원 신동숙 목사(순복음임마누엘교회)
오승욱 목사(천안사복교회)
황용연 목사(은혜와평강교회)
정석현 목사(평강교회)
김임복 목사(순복음무등교회)
백영자 목사(독등순복음교회)

부회장 김기진 목사(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남원중앙교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순복음예수나라교회)
상임부총무 윤혜영 목사(순복음추진교회)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
최정식 목사(순복음복된교회)
사무국장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
실무총무 신복희 목사(순복음화평교회)
박홍렬 목사(오성사랑교회)
윤성수 목사(진주은평교회)
서기 성기찬 목사(동울산순복음교회)
재무 조은혜 목사(순복음빛된교회)

회계 양은례 목사(창조교회)
감사 김종연 목사(은혜교회)
최남성 목사(동강순복음교회)
회원 권택선 목사(순복음하은교회)
김연옥 목사(행복한선교회)
이화숙 목사(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순복음승리교회)
홍현자 목사(사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
준회원 정한무 전도사(순복음빛된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도시지역 미자립교회(성도수 20명 이하) 및 농·어촌, 산간벽지, 낙도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010-4420-8650 /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010-3698-5764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5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 아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5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6년 6월 27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6월 23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총 회 장 목사 조 남 영
총 무 목사 최 형 택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신입생
- ⑥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총회목회대학원 졸업 후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 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 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형신학으로 변질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 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 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 였다. 그럼에도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 가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에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다른 견해를 가지고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아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의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 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 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서울시청앞 서울광장 미스바구국금식기도성회

- 일시 : 2016년 6월 8일(수) 오전 9시~6월 10일(금) 오후 늦은 시간
- 장소 : 서울시청앞 서울광장 앞마당
- 방법 : 3일간 매일 2시, 7시 예배를 제외한 매시간 구국금식기도 실시

한국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역사의 현장, 기도의 현장으로 성도님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흘동안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기의 한국을 구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 예수님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WCC총회 당시, 총회에 반대하여 '한국교회 부흥성회'로 하나님께 영광돌렸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모여 제2차 '한국교회 미스바 구국금식기도성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 대표대회장 : 피종진 목사, 이태희 목사
- ▶ 공동대회장 : 조남영 목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정판술 목사(전 WCC반대운동 회장 겸 고신 증경총회장)
김노아 목사(전 세기총 대표회장 겸 예장 성서 총회장)
유인상 목사(대기총 증경총회장/예장합동)
박성기 목사(전 WCC반대운동 회장 겸 브니엘 이사장)
윤태중 목사(침신 증경총회장)
최병국 목사(대신 증경총회장)
- ▶ 상임위원장 : 김향주 박사(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 조직위원장 : 김경철 교수(전 WCC반대운동 사무총장)
- ▶ 상임총무 : 최형택 목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무)

사무총장 임요한 목사(예수재단 대표) 기획위원장 김인기 목사(WMMA) 홍보기도위원장 김진복 목사 대외협력위원장 김재만 목사 경호위원장 서요한 목사 홍보위원장 주동식 기자 예배위원장 곽영민 목사 진행위원장 김호규 목사 찬양위원장 성기찬 목사 사무국장 이남숙 전도사(010-2294-8074)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성도님들은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조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이번 '구국금식기도'에 동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준비물 :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돛자리, 텐트(개인용 및 교회용)를 치고 금식기도할 준비물 일체
- 금식성회 공식계좌 : 우리은행(1002-555-534801 예금주 : 김경철 /조직위원장)

한국교회 미스바 구국금식기도성회 준비위원일동

이지성-차유람, 기아대책 필란트로피 클럽 위촉

부부 함께 32명 아동 결연해 꾸준히 후원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지난 5월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서구 연창동 기아대책에서 이지성, 차유람 홍보대사의 필란트로피 클럽 위촉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필란트로피 클럽은 2014년 개설된 기아대책의 고액후원자 모임으로 1억 원 이상 기부한 개인 후원자로 구성된다. 이지성, 차유람 홍보대사는 각 27, 28번째 필란트로피스트로 위촉됐다.

이지성 홍보대사는 <리딩으로 리드하라>, <생각하는 인문학>의 저자로, 2011년부터 기아대책과 인연을 맺고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기아대책을 통해 29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으며, '드림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잠바브웨, 캄보디아 등지에 18개의 학교, 교회를 건축했다. 전 당구 국가대표 차유람 홍보대사 역시 아동 3명을 결연하여 후원하고 있다.

이지성 홍보대사는 "나눔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나눔 그 자체"라며 "더 열심히 나눔과 봉사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부부가 나란히 기아대책의 비전과 사역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두

사람의 필란트로피 클럽 위촉이 나눔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화답했다.

방심위, CBS 신천지 보도 '문제 없음' 결정

CBS TV의 <이단 신천지, 끝나지 않은 싸움>과 <이단 신천지 이웃>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5월25일 방송소위를 열고 '문제 없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이단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

전)의 폐해와 심각성을 다룬 CBS TV 특집좌담 <이단 신천지, 끝나지 않은 싸움>(4월 8일 방송)과 <이단 신천지 이웃>(4월 1일 방송)에 대해 두 특집방송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객관성(제14조)과 명예훼손: 금지(제20조 1항)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위원

전원이 '문제 없음'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신앙의 자유 존중(제32조)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해 특집 다큐멘터리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8부작)에 이어, 올해 두 개의 특집방송 모두 방송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백석대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극복선도대학' 지정

"치매 인식 개선으로 극복 노력"

백석대학교(총장 최갑중) 보건학부가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산하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지정하는 '치매극복선도대학'으로 지정돼 5월25일 교내

자유관 2층 회의실에서 충남치매센터와 협약식을 개최했다.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6개 학과(물리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작업치료학과)는 지난 10여 년 동안 노인의

치매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적용해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또한 지역사회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 다양한 노인관련 시설에서 현장 실무교육과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기도 했다.

치매극복선도대학으로 지정된 백석대학교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교과목 중 치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춘 지식인 양성에 앞장서는 대학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밖에도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치매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서 나설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백석대학교 정정미 학사부 총장은 "치매는 더 이상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며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등으로 치매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석대 보건학부는 체계적인 학과 교육과 함께 전공과 연계된 지역사회 대상 주기적인 봉사활동으로 매년 입시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경쟁력 있는 학부로 부상하고 있다.



베트남 아동들이 꿈꿀 수 있는 학교 건립

월드비전-한화토탈, 2016년 베트남 프엉쑤언 쑤언까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www.worldvision.or.kr; 회장 양호승)은 지난 5월 23일 한화토탈과 베트남 프엉쑤언 쑤언까오 1번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협약으로 베트남 프엉쑤언 지역에 아동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실 6칸 신축 및 교육 기자재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베트남 프엉쑤언 지역은 도심에서 떨어진 산악 지역으로 주민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빈농으로 만성적 빈곤지역이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이 미비하다.

지원대상인 쑤언까오 1번 초등학교는 교실 수 부족으로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으며, 낙후된 환경으로 아동들의 학습능률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규교육에서 과잉되는 주요 교과와 예체능 수업시간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인식 부족으로 아동들의 교육지원이 쉽지 않다.

월드비전은 앞으로 한화토탈의 후원을 통해 이러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아동들이 양질의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베트남 아이들이 마음 놓고 꿈을 꿀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후원해주시는 한화토탈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소중한 후원금이 투명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토탈은 월드비전과 함께 2013년 방글라데시 다모아랏 자한푸르학교 건축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필리핀 알람알람지역 람잇초등학교 건축사업, 2015년 캄보디아 프놈 스루오치 지역 학습센터 건축 등 지구촌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 요청

영락교회 후원금 3천만원 월드비전에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지난 5월 17일 영락교회 (담임목사 이철신)로부터 강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에콰도르 어린이들을 위해 후원금 3천만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월드비전은 지난 4월 16일 오후 7시경 에콰도르에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카테고리 2 (피해자 10만~100만)을 선포하고 현지 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가장 피해가 심한 에스메랄다스와 마나

비 지역의 가장 취약한 이들을 50,000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후원금은 월드비전을 통해 집과 가족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의 생명을 구하고, 지진 피해 고통 경감 및 장기적인 회복을 목표로 향후 임시주거지, 아동보호 및 지원, 비식량 구호물품지원, 식수위생사업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한국교회가 에콰도르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기도를 보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에콰도르를 비롯하여 아이티, 일본, 네팔 등 국제적 재난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마지막까지를 목표로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활동을 펼쳐왔다고 전하고 전 세계 어느 곳든 재난이 발생하면 24~72시간 이내 긴급구호 전분기를 현장으로 파견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며 지역의 자립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새성전 입당예배

강사



정부용 목사
교단 정책위원
대림벨교회 회장

담임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일시 2016년 6월 18일(토) 오전 11시

장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경기도 광주시 현산로 130-40(초월읍 도평리 6-1) 031)765-2791, 010)6202-6312



노숙인·독거노인 뷰티사진액자 전달

국제뷰티구호개발NGO 월드뷰티핸즈(WBH)



월드뷰티핸즈(최애스터 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21일 서울역 신성교회, 해동는 마을(대표 김원일 목사)에서 노숙인, 쪽방촌 등 독거노인 50여 분을 대상으로 노인분들께 "내 생애 최고의 멋진 모습 담기" 뷰티사진액자 전달식을 가졌다.

월드뷰티핸즈는 지난 4월 13일 이들을 대상으로 뷰티서비스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정현일 이사장과 최애스터 회장을 비롯 이사인 김예성, 김주연, 권오현, 김민, 성호용 교수, 이마나 대표와 김광용 작가, 김광희, 최성일 교수 그리고 위보라 국장, 위지현, 정지은, 김연미, 최원희 강사와 신한대, 안산대, 정화예술대, 서경대 등 뷰티

분야 전문자원봉사자들이 헤어스타일링과 메이크업 네일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뷰티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진액자는 생명나무순교회가 후원하여 기증하였다.

한편 국제뷰티구호개발NGO "월드뷰티핸즈"는 K-한류와 함께 K-뷰티를 통한 다문화, 북한동포, 노숙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과 사회소외계층을 비롯 베트남을 비롯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개발국가 소외계층을 사랑과 나눔으로 섬기는 5대미용분야에, 메이크업, 피부, 네일, 화장품) 전문교수들과 현장전문가를 구성된 종합뷰티교육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지역공동체’ 주제 학술대회

한국기독교교육학회(회장 조은하) 2016 하계학술대회가 6월 4일 목동 한사랑교회에서 '지역공동체와 기독교교육'이란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학회에서는 성인교육, 교육미디어, 여성교육, 통일교육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논문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윤성덕 박사(연세대), 김도일 박사(장신대), 정재형 박사(실천신대)가 맡았다.

조 회장은 "이번 학회는 기독교교육의 최근 화두를 응답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다음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회복시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육학회는 기독교교육학의 학문적 교류와 발전을 위해 모인 단체로 연세대, 장신대, 감신대, 고신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영혼을 향해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말씀은 달콤한 꿀음이라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가운데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 No가 Yes로 변했다.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신다.

삼은대길교회로 부름받아 사역 4년차 매일 매일이 은혜의 생활이다. 담임 목사님의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 덕분에 나도 전도하는 일군으로 쓰임 받아 많은 훈련을 받음으로 다양하게 여러 전도방법을 경험하고 있다. 본 교회 전도동력을 위한 전도프로그램으로 전도국 헌신에 배에 가족세트전도로 유명한 박영수 목사님을 세미나강사로 초청하여 세트전도의 강점인 능력전도에 도전을 받았다.

감사하게도 5월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미나를 해주신다고 하니 나로서는 전도열매 맺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지라 "나도 전도의 능력을 주세요"라고 시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였다.

가다리던 화요일, 성도님들께 연락하여 세트전도 세미나에 참석할 성도들은 강의시간에 전도현장 동영상 보면서 영접기도(요:1:12)를 통한 훈련을 하면서 두 사람씩 팀을 이루어 연습하였다. 영적전쟁인 현장전도를 위한 통성기도를 마치고 전도 현장으로 직접 간다고 전도 전단지 대응으로 교회주보와 교배, 전도대상자를 기록할 수 있는 수첩을 준비하길 원하였다.

한 사람이 영접하여 가족을 전도하는 세트전도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데도 우산을 쓰고 전도하러 현장으로 나갔다. 가까이 따라다니며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감격과 기쁨, 자신감도 얻었다. 참가전도나 개인전도에서 영접기까지도 해 보았지만 전도한 참가나 가정에 교배를 붙이는 전도현장은 처음 보는 것이라 그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전도에 가슴이 뛰면서 신이 났다. 영접기도 후 연락처를 거침없이 받아 적으면서 사진까지 찍는 데도 한결 같이 전도대상자들이 호응해 주고 담임목사님의 인수기도로 축복해 주면서 자연스러운 인사와 관

계 맺기까지 전도 과정의 마무리는 놀라웠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명단을 놓고 기도하며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인내하며 섬기는 일이 관건이라 생각한다. 아직 3년의 세미나 기회가 더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도 기대하며 지혜를 얻고 싶다. 가족세트전도를 잘 훈련하고 전수 받아 교회의 부흥을 위해 충성하고 싶다. 요즈음 나는 박 목사님의 세트전도를 학교 앞 전도 현장에서 접목시키고 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을 대원들과 지혜롭게 은사대로 전도할 것이다.

겸손과 온유와 충성과 순수함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리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사역자가 되도록 충성하겠다. 내 생애 마지막 그날까지 한평생이라 도 더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 헌신할 것이다. 생각이 바뀌고 삶의 습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되어 어디든 누구에게든 대담한 믿음 갖기를 열망한다. 순종과 충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일군이 되고 싶다. 강력한 기도로 무장된 복음 일군을 찾고 세우고 끝까지 한결같은 집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순종적인 삶을 좇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순종으로 훈련하며 충성하겠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순종하겠다. 깨우쳐 주시고 사명주신에 주님 향한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길 기대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달려가겠다.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삼은대길교회 김현옥 전도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해외 미자립성서공회에 성서기증 등 보고

대한성서공회 제125회 정기이사회 이사장에 손인웅 목사 선임



으로 설교를 하였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신 이사 중 교단대표로 박종덕 사관(구세군대한본영), 김웅 목사(한국기독교교장로회)가 소개되고, 찬성위원 대표로 김현배 목사, 손인웅 목사, 정하봉 목사가, 감사로는 최규환 장로가 소

개되었다. 이어서 권의현 사장의 사장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특별히 이번 사장 보고에는, 지난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제9차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세계총회에서 대한성서공회를 출판 영역에 있어 성서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성서 출판 지원 센터로 공식 인준한 것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그동안 대한성서공회가 출판 전반에 걸쳐 해외성서공회들을 폭넓게 지원하며, 사역 범위를 확장해 가고 미자립성서공회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성서기증 사업을 펼쳐온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성서 출

판 지원 센터로 공식 인준을 받은 후에도 성서공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성서 보급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약속하며, 미자립성서공회 성서 기증 사업과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지원 사업을 위하여, 2020년에는 연간 목표를 총 400만 불로 정하고, 한국 교회와 협력해서 이 일을 수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건으로는 교단대표로 신상현 목사(예장고신)의 이사 선임이 있었다.

신 임원으로 이사장에 손인웅 목사, 부이사장에 이용호 목사, 서기에 김현배 목사, 회계에 이선균 목사가 선임되었고, 실행위원에는 김순권 목사, 김동권 목사, 정하봉 목사, 이창익 목사, 우창준 목사, 한규동 목사가 선임되었다.

백석대 레슬링팀, 미국 펜실베이니아 메시아대학과 친선교류

백석대학교(총장 최갑중) 레슬링팀은 5월 27일(금) 오후 3시 교내 체육관에서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메시아대학(Messiah College) 레슬링 팀 임원 3명,

선수 10명과 친선교류훈련을 가졌다.

이번 훈련은 '스포츠를 통한 복음과 나눔'이라는 목표 아래 미국 FCA(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 기독교 선수모임)의 대표로 메시아대학 레슬링 팀이 백석대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교류훈련을 통해 양 대학 선수들은 깊은 땀방울을 흘리며 서로의 우정과 기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한재덕 학부장은 "이번 교류로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대학인 백석대학교와 메시아대학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이루낸 선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스포츠를 통해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석대학교 레슬링 팀은 지난 2015년, 미국 괌에서 '태슬링캠프 재능기부'로 괌 국외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것은 물론 매년 이뤄지는 일본 주오대학과의 정기교류, 이번 메시아대학과의 친선교류훈련 등으로 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우수한 스포츠리더를 길러내는데 스포츠 해외교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219(어현동 470-16)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택배판매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피부·성형·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색소클리닉 2.여드름클리닉 3.흉터클리닉 4.비만클리닉 5.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수·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벤엘메모리얼파크 건립기념 감사예배

한국교회와 함께 건립하는 기독교전용 추모공원 ... 이용주 목사, 하나님의 집 벤엘추모공원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



설교
이용주 목사
(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

국내 최대규모 기독교 연합 추모공원 벤엘메모리얼파크 건립기념 감사예배가 지난 5월 26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532-3 벤엘메모리얼파크 건립현장에서 드려져 추모와 휴양, 커뮤니티가 함께 하는 고품격 추모시설

을 한국교회에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기침 중경 총회장 권처명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푸른초장 브라스밴드의 특별찬양연주 (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 이용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요 15:5-7 말씀을 본문으로 '성공의 비결'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벤엘이란 이름의 뜻이 전하는 것처럼 벤엘추모공원이 귀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에

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범사에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서울고려신학교 신학대학원장 홍연표 목사의 축사, 벤엘메모리얼파크 이성수 대표의 사업배경 및 시설소개, 벤엘메모리얼파크 이사장 홍정선 목사의 건립기념 감사인사말이 있었으며 홍 목사는 인사말에서 많은 분들의 기도과 성원으로 기독교연합 추모공원의 면모를 갖추어 가게 됨을 감사드리다고 전하고 수익금일부를

불우이웃과 소년·소녀 가장 및 선교사업을 위해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벤엘메모리얼파크 건립기념 목사의 광고,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전 총장 노원수 목사의 축사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벤엘메모리얼파크와 서대선추모공원(대전지역)의 자매결연식을 갖고 수도권과 중부권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벤엘메모리얼파크는 한국교회와 함께 건립하는 기독교전용 추모공원으로 사전예약 멤버십으로 교회별로 추모실을 선택 소유할 수 있으며, 벽제화장장에서 40분대, 서울 도심에서 30~40분 거리이며 서울-춘천간 고속도

로의 설악C에서 5분 청평역에서 10분대로 수도권 근접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벤엘메모리얼파크는 생태환경이 그대로 보존된 유명 산지락에 위치한 자연 속의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지하 1층-지상 3층의 쾌적하고 은혜로운 공간으로 건축되어 한국교회에 시중보다 50%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예정이다.

1544-0442 www.벤엘추모공원.kr

서울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26

아이에스비즈타워 1301호

가평현장: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532-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벤엘교회



자문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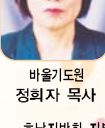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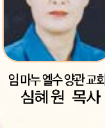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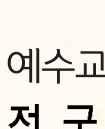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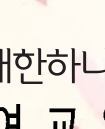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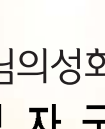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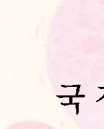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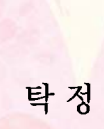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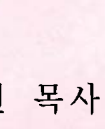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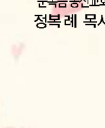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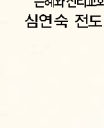
국장 탁정신 목사
온선교회

조직

임원단

차장	기획실장	행정부장	섭외부장	경조부장	예배부장	홍보부장	행사부장	복지부장	사회부장	선교부장	봉사부장
 순복음중앙교회 김효신 목사	 일신빌교회 조명란 목사	 주교교회 김찬애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희복순복음교회 김순자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빈송교회 한순남 목사	 예중순복음교회 최영희 목사	 순복음경문교회 이경자 목사A	 군업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순복음참종교회 조은주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전국지부장

 서울중부지방회 지부장	 서울강남지방회 지부장	 서울중앙지방회 지부장	 서울남서지방회 지부장	 경기기지방회 지부장	 경기중앙지방회 지부장	 경기남지방회 지부장	 안산시흥지방회 지부장	 경기북지방회 지부장	 용인지방회 지부장	 일산지방회 지부장	 김포지방회 지부장
 사랑과평화교회 홍현자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이현옥 목사	 예수왕교회 정애스터 목사	 반석교회 신은순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협문신교회 김남순 목사	 믿음교회 이경자 목사B	 동성한생명교회 서석자 목사	 순복음성광교회 김인희 목사	 순복음광강교회 설수자 목사	 임마누엘교회 이정애 목사
 강원동지방회 지부장	 강원서지방회 지부장	 대전지방회 지부장	 충북지방회 지부장	 충남지방회 지부장	 청주지방회 지부장	 경남지방회 지부장	 영남동지방회 지부장	 부산지방회 지부장	 광주지방회 지부장	 전북지방회 지부장	 전북서지방회 지부장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비율기교회 정희자 목사	 대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대청신기교회 임연임 목사	 솔로몬순복음교회 권옥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통영순복음교회 김덕숙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순복음빛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엘림교회 배영래 목사	 성령알교회 임성애 목사	 임마누엘수양교회 심혜원 목사
 능동순복음교회 백영자 목사	 순복음동신교회 정복래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탁정신 목사

한국교회 위상 회복과 텃업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한국교회연합-국제 한국구호기구 기아대책, 업무협약 맺어

한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회연합(대표 회장 조일래 목사)과 국제한국구호기구 기아대책(이사장 손봉호 장로)은 지난 5월 23일(월)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중강당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한국교회 위상회복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텃업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실추된 한국교회의 위상 회복을 목표로 한국교회연합 제6회 총회에서 결의된 한국교회 텃업운동은 그간 한교연 회원교단과 교회들 중심으로 모금운동이 진행돼 오다 기아대책과 손잡고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 1부 예배는 전광훈 목사(한교연 공동회장)의 사회로 이영주 목사(한교연 서기)의 기도, 양순철 교수(부산대·한교연 청소년위원회)의 성경봉독, 유동선 목사(기성 총회장)의 설교와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협약식은 김훈 장로(한교연 기획홍보실장)의 사회로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개회사, 조경태 의원(새누리당)과 김종덕 장관(문체부)의 축사, 손봉호 이사장(기아대책기구)의 격려사, 양용희 교수(호서대·텃업운동 운영위원장)의 텃업운동 소개, 베다해 씨(가수·기아대책 홍보대사)의 인사에 이어 한교연 조일래 대표회장과 기아대책 손봉호 이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교환하는 순서를 가졌으며, 서울신대 노세영 교수(자기 총장)가 텃업운동



참여 서약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개회사에서 "한국교회 텃업을 위한 한국교회와 기아대책간의 업무협약을 하라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텃업운동은 한국교회 갱신과 사회문제 및 봉사를 위한 기도협력운동으로 성도들의 성경말씀에 따른 올바른 삶의 변화를 위한 운동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생명 존중, 가정회복 및 사회통합, 빈곤, 폭력예방 등 한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후원운동"이라고 강조하

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같은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국회사무총장 권한대행)·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원용기 총무실장 대독)이 축사를, 기아대책 손봉호 이사장이 격려사를 전했다. 또한 홍보대사인 가수 베다해 씨가 인사했으며, 텃업운영위원장 양용희 교수(호서대)가 텃업운동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사)한국기독교기도원총연합회, 제31차 정총 성료

대표회장 윤병이 목사 등 임원 유임, 사업계획 확정

(사)한국기독교기도원총연합회(이사장 정진수 목사, 대표회장 윤병이 목사)는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속초 디베라153연수원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갖고 임원진을 유임시키는 한편 31회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총회는 지비량부흥성회, 625, 8.15성회를 비롯한 회원수련회(8월 17일~18일), 비행정소년 선도를 위한 사랑음악회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매월 모이는 실행위원회 및 기도회

에서 이를 점검해 강력히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조은선 목사의 사회로 김원준 목사의 기도, 박정월 사모의 성경봉독, 강성희 목사의 특송, 대표회장 윤병이 목사의 왕하 2:6~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갑절의 영력을 받자'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계속된 개회예배는 조은정 목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 채수자 목사의 '한국기독교기도원총연합회를 위한 기도', 이사장 정진수 목사의 광고, 윤병이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회무처리시간은 회원 호명에 이어 개회선언 후 각종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는 한편 임원선거를 통해 현 임원을 그대로 유임시켰다.

3부 폐회예배는 김나단 목사의 사회로 황수진 목사의 기도, 김상호 목사의 성경봉독, 정진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정진수 목사는 마 6:14~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용서의 힘'이라는 제목의 설교 및 인사말을 통해 "우리 연합회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순수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무장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자"고 강조했다.



사설

기도로 세운 나라, 기도로 지키자!

호국·보훈의 숭고한 향기가 온 나라에 퍼지는 6월을 맞았다.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 기도로 하는 사람들이 위기의 이 나라를 지켜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 아닌가 한다. 이 나라는 기도로 건국된 지구상 몇 안 되는 나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역사학계에서 대한민국 건국에 관해 여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되고 전 세계에 공인된 입헌 민주공화국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조시대 국민도 아니고 삼국시대 국민도 아니다. 기도의 신앙인 이승만 박사가 주도하여 세우고 국제연합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대한민국이다. 그 대한민국의 제헌 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 임시시정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이승만 박사가 감리교 출신 목사인 이윤영(李允榮 1890~1975) 의원에게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고 여러 종교를 가진 의원들임에도 흔쾌히 동의하였고, 그렇게 제헌국회는 기도로 개회됐다. 이 나라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출범하였던 것이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동의와 제정) 우리가 다성심으로 일어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승만 박사는 요청했다고 국회기록은 전한다. 이윤영 의원이 나올 때 일동 기립했다. 대한민국이 축복 받는 비결이 이루어 진 순간이다. 모두 796자의 이윤영 의원의 제헌국회 기도문,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감동할 내용이고 현재 진행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선명히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무력을 굴하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울

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인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증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축원하나이다..중략..원컨대 우리 조선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중략..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저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원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중략..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 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저 지중해에서 오늘날 난파선을 타고 격랑의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처참한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리아는 기원전 8세기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수리아'의 땅이다. 유대 백성들을 괴롭힌 심판인자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2천 여 만 국민 기운에 1천 여 만이 유랑민과 피난민으로 나라를 버리고 떠도는 참담한 상태가 되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체를 확고히 보전하여 이만큼 안정되고 전 세계가 우러러 보는 나라가 되어 있지만, 불과 60여 년 전에 무서운 전란의 참상으로 잿더미가 되고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나라는 겉으로는 안정된 듯하지만, 경제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의 심화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속으로는 언제든지 일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실정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는 어지러운데 정치도 지도자도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믿을 것은 오직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 우리 주님께 올리는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기도뿐이다. 우리 모두 기도하여 이 나라를 지키는 유국총정의 그리스도인이 되자.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채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agpgs.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하여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년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2년4학기 (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수시
- ② 원서접수 : 수시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 나길 8
(총회목회대학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수여한다(교단 인정).
- ② 본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3

- 원서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



부산 영도기독교연합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

주제 :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사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대표회장



김희택 목사
부산영도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제8영도교회 담임

| 일 시 | 2016년 6월 24일(금) 저녁 7시 30분

| 장 소 | 고신대학교 예음관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동삼동)

| 주 관 | 부산 영도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김희택 목사)

